

# 與, 野 피켓 시위에 “조직적 국감 방해” “막무가내식 태도”

### 국민의힘, 국정감사 둘째날에도 ‘특검 수용’ 피켓 시위 이어가

### 민주 “피켓시위장 변질” “자당 대선후보 흠결 돌리려는 술책”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두번째 날인 5일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특검 요구’ 피켓 시위를 이어간 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처럼 국감장을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피켓시위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힘 지도부의 조직적 국감 방해 의욕이 짙다”며 “국민의힘 멋대로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야당은 오늘부터라도 남은 국감일정에 충실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부대표도 “국민의힘은 민생국감을 방해하는 정쟁국감을 즉각 중단하시라”며 “1년에 한차례 있는 정기국회마저 정쟁의 시간으로 치환하고 있다. 특검 요구는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는 시간끌기식 수사 관행이다. 국감을 파행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국감 첫날에 이어 둘째 날까지,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을 저버리는 정쟁 국감을 고수하고 있다”며 “손바닥엔 임금 ‘왕’자를 새기고, 역술인의 조언에 맞춰 속옷을 갖춰 입는다는 자당 대선 후보들의 흠결을 돌리려는 ‘술책’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공허한 특검 주장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오히려 발목 잡아 사건을 질질 끌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태도는 정치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라떼 정치를 넘어 정교 분리 이전의 청동기 시대로 돌아가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피켓팅하면서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도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정무위·기재위·교육위·과방위·국방위·문체위·농해수위·산자중기위·환노위·국도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위·행안위 등 12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해수위·산자위·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는 국민의힘

의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 피켓 시위에 따른 민주당 항

의 퇴장으로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법원 장기미제 10년 사이 무려 450% 증가

###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줄 것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대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2010년~2020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12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이 10년 지난 2020년에는 14,458건으로 무려 4.5배 이상 증가했다.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10년에 약 140일이었던 민사사건은 2020년에 약 172일로 약 1.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0년에 약 105일이었던 형사

사건은 2020년에는 약 161일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소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평균처리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장기미제도 2010년에 비하면 거의 4배가 늘었다. 이래서 국민의 정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여야, 국토부 국감 공방...유력 대권주자 때리기

### 與, 윤석열 부친 주택·장모 양평 개발사업 추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과 관련된 질의로 채워졌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와 장모에 대한 의혹을,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관고리를 파헤치는데 집중했다.

국토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특혜개발 공방으로 파행됐다 오전 11시30분께 속개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렸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부친의 주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김씨의 누나가 개를 키우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는데 매마침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

냈다고 한다”며 “주변 중개사는 매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김씨의 누나가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7억원을 대출하겠다고 하고는 집값의 70%에 달하는 12억을 대출했다”며 “개를 키우려고 집을 샀다면서도 입주계획에는 임대라고 작성한 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짚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경기도 양평에서 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농지를 사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며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시행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공사를 지속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김선교 의원이 당시 양평군수였고 윤 전 총장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대장동 사업은 6%의 수익률 제한을 두고 있는 택지개발법과는 달리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강제수용된 토지인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 SK뷰테라스는 성남시 사상 최고가인 평당 3440만원에 분양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이익이 높아진 배경에 이명박 정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성남시에 사업을 제안했고 성남시가 이 제안을 수용했는데,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제안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원희룡 측 “윤미향 국회에 있는 것 자체가 치욕”

### “발마사지 등 사적 편취 내용 충격적”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 측은 5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회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국민과 의회의

치욕”이라며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원희룡 캠프의 신보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밝혀진 윤 의원의 후원금 사

적 편취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발 마사지, 교통 과태료, 세금 납부 등 공금 횡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